

# 트럼프 총격범 ‘대통령 암살미수’ 기소... “최고 종신형”

### 워싱턴 연방법원 첫 공판... 30일 ‘구금 지속 여부’ 판단 총기·탄약 운반법 위반 등 3건 혐의... 총격범 목록부담 법무장관 대행 “철저 수사”... 총격 대응엔 “실패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27일(현지 시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용의자 폴 토머스 앨런(31)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으며, 이날 파란색 수갑박 차림으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발렌타인 검사는 또 앨런이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3자루를 갖고 워싱턴DC로 왔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고 AP는 전했다.

앨런은 또한 주(州)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매슈 샤르바 연방 차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샤르바 판사는 또한 앨런에 대한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30일 열기로 했다.

앨런은 이날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신원 및 나이를 말했고,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은 법원에 들어오고 나갈 때 등 뒤



2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총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드 블랜치(왼쪽) 미 법무장관 대행과 함께 제니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이 용의자가 소지했던 무기들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도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니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대행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이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력범죄 도중 총기발사 혐의도 최소 10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랜치 대행은 총격 발생 당시 당국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집

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블랜치 대행은 정치적 폭력과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난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피로 검사장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장에 앨런이 소지했던 산탄총과 권총, 총기 등을 대형 사진으로 제작해와 걸어두기도 했다.

앨런은 25일 오후 8시34분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 만찬장 근처의 보안검색 구역에서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직후 당국에 제압됐다.

앨런은 당시 총기를 발사해 보안 요원 1명이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만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글: 사노연합뉴스

## 찰스 3세 방미... 美·英 관계 악화속 ‘왕실 외교력’ 시험대

### 2022년 즉위 후 첫 국빈 방문 70년 전 모친 역할 재연 주목



2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부부와 찰스 3세(왼쪽) 영국 국왕 부부가 백악관 그린룸에서 티타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케밀 라왕비와 함께 27일(현지 시간) 나흘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왕 부부와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17분께 백악관 남쪽현관에서 찰스 3세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는 악수하며 인사했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뒤 백악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백악관이 즐기자는데 제공한 간단한 행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찰스 3세 부부는 백악관 그린룸에서 티타임을 한 뒤 백악관 주방 정원 인근 사우스루에 새로 설치

된 백악관 벌통(beehive)을 둘러봤다.

왕세자 시절 19차례 미국을 찾은 찰스 3세가 2022년 즉위한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국왕이자 그의 모친인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7년, 1976년, 1981년, 2007년 등 4차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았다.

엘리자베스 2세의 첫 미국 국빈 방문이

던 1957년은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던 때였다.

이집트의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반발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 군사행동을 감행했고, 이에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정적 압박을 가해 미영 관계는 크게 틀어졌다.

엘리자베스 2세는 이때 미국을 찾아 영국 왕실의 전통적 외교 리더십인 ‘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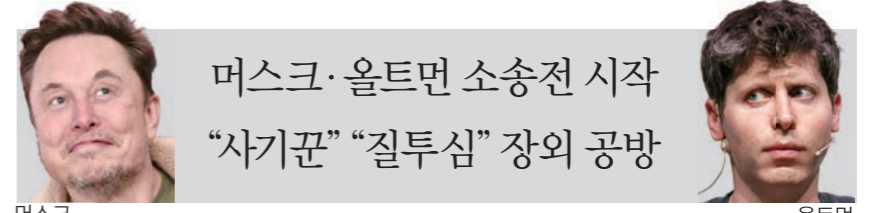
파워’를 한껏 펼쳤다. 31세였던 여왕은 젊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워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잠재워 영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외교적 불신을 희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찰스 3세의 이번 방미 역시 양국 관계의 긴장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 약 70년 전 상황과 닮은 꼴이다.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야심 등으로 균열이 시작된 양국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영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했지만 커어 스타머 총리가 이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더욱 악화한 상황이다.

이번 찰스 3세 국빈 방미 목적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찾아 양국 역사, 현대 관계를 기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찰스 3세가 모친이 했던 것처럼 양국 간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 머스크·올트먼 소송전 시작 “사기꾼” “질투심” 장외 공방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송 시작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다.

머스크 CEO는 27일(현지 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캠(Scam·사기) 올트먼과 그레그 스톡먼(Stockman·주식맨)이 공익단체를 훔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고 비난했다.

올트먼 CEO의 이름인 샘(Sam)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의 성인 브록먼(Brockman)을 조금씩 고쳐 이들이 사기를 통해 오픈AI에서 주식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처럼 조롱한 셈이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은 간단하다. 공익단체를 약탈해도 괜찮다는 법적 선례를 미국에 남기고 싶은가”라고 물으면서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픈AI를 시작하고 자금을 지원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모두 가르치고 나자 그들은 그 공익단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스타트업 지원단체인 ‘Y콤비네이터’ 사장을 맡았던 올트먼 CEO가 자신을 인터뷰하며 오픈AI에 관해 물어본 영상을 이날 X에 재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올트먼을 겨냥해 ‘사기 공세’를 펼친 것과 달리 머스크 측은 이번 제판을 앞두고 정작 ‘사기’와 ‘추정 사기’ 관련 주장을 취하했다가 미 경제 방송 CNBC가 이날 전했다.

오픈AI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진실과 법이 모두 우리 편인 법정에서 우리 사건을 다루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근거 없는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나 머스크 CEO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자연이 준 선물 정선 약도라지!

## 국내산 청정 강원도 약도라지 100%

자연에서 나온 약도라지를 정성을 다해 다듬은 뒤, 저온에서 72시간 추출하여 한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無 색소!**

**無 설탕!**

**無 첨가제!**

울이랑에서 정성과 고민을 다해 만든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은 강원도 산 속 깊은 곳의 순수한 자연에서 자란 자연산 약도라지만을 사용하여 제대로 만든 제품입니다.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좋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 약도라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딛고 자란 3년 이상된 약도라지만을 엄선, 직접 슬라이스하여 통째로 72시간동안 진하게 달여 완성시켰습니다. 게다가 색소, 방부제 첨가가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도라지 특유의 씹새로운 맛을 줄이기 위해 국내산 쌀조청을 일부 첨가하여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을 순하게 배합하였습니다. 거기에 합성 감미료, 착향료, 설탕, 색소가 일절 첨부되지 않은 원료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진한 약도라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선 약도라지 진액고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평소 목이 자주 칼칼거려서 불편하신 분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황사, 미세먼지, 배기가스, 흡연 등 나쁜 공기에 시달리시는 분
- 선생님, 학원강사 등 목을 많이 쓰시는 분

**無 색소! 無 설탕! 無 첨가제!**  
오직 도라지만을 통째로 넣어 맛이 깊고 진합니다!

자연순 정선약도라지 당도 측정 Brix 77.8% 순수한 약도라지의 맛!

황사,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걱정될 때!

주문전화 : **1588-6232** 입금계좌 : 농협 301-0280-1454-01 주식회사 웃가네

· 제조원 : 농협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 /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영리길 29-16 · 유통전문판매원 : (주)웃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1, 남신빌딩 4F

·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인혜택